

>> 제주시갑 선거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 것이다. 자치·자존과 환경을 지키고 키우는 ‘제주다운 제주’를 열어내겠다. 도민이 주도하는 성장 시대를 열어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 지속가능한 미래경제의 틀을 다지겠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강화, 환경보전, 경제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틀을 다지겠다.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배·보상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초석을 놓겠다.

도심권은 교통·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여유로운 삶을, 농산어촌지역은 가산형직불제 도입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끌겠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의 문화공동체가 갈등을 접고 화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겠다. 도정·국정 경험과 실력을 이제 제주발전을 위해 쓰겠다. 제주시갑 지역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만들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 당부드린다.

“보수·중도 기반 실용·혁신 최적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이번 선거는 제주지역 정치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독점체제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독점체제는 국회의원 16년 장악,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 의석 차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권력이 독점이 이뤄지면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폐해의 직접적인 결과가 제주가 경제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저는 ‘현장과 정책, 정책과 현장’을 이룰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경험적으로 키워왔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서의 시민운동, 농업경영체 창업·경영의 실용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으로서의 실무행정, 정당 도당 책임자 등을 고루 경험했다. 실용과 혁신 그 자체이다.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중도에 기반한 실용과 혁신의 최적 후보이다.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제주현안을 잘 아는 사람, 과연 누구인지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정지판 반드시 바꿀 것”

정의당 고병수 후보



제주정지판 이번엔 제대로 바꾸겠다. 지방에서는 대장질하고, 중앙 눈치만 보던 제주정지판을 이제는 반드시 갈아야 한다. 난개발과 도민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만하고, 무능한 양당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꾼’들을 심판하고, 도민을 위한 정치가 탄생해야 한다.

20년 동안 의사생활 하면서 의료봉사활동, 해외 재난 구조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의료정책연구도 20여년 동시에 해왔다.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든 해왔다. 이제 정치로 제주를 지키고 싶다.

2020년 4월 15일 저녁 총선이 끝나고, 고병수의 당선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전국의 눈길은 제주로 쏠릴 것이다. 제주가 중앙정치의 핵심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가성비 갑, 제주시 갑 국회의원 탄생은 정치인 한명이 바뀌는 사건이 아닌 제주 정치의 ‘판’을 뒤집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해 제주정지판을 갈겠다.

“적폐 청산하고 공정 바로 세울 것”

무소속 박희수 후보



이번 총선은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세우는 선거다. 아빠 찬스, 낙하산, 밀실야합을 일삼는 공정하지 못한 세력을 밀어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지난해 초여름부터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제주도내 곳곳을 걸으며 더 가까이서 유권자들의 고통을 청취하며, 정책을 발굴했다. 말이 아닌 실천하는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저 박희수,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도의원 4선, 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도민들과 호흡하며 오직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었다.

누구보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 국회의원의 정책은 능란한 말재주가 아니라 국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적시에 제대로 짚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역을 잘 알아야 지역의 이익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저 박희수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

>> 제주시을 선거구

“튼튼한 제주 미래 만들기 위해 다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46개월 동안 스스로 묻고 답하며, 든든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총선 승리의 결심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에 기반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쳤고,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이해했으며,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능력을 키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집권 여당, 공당 당원으로서 주권주의를 확립시켜 분열됐던 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형 민주주의의 완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4·3 유적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과 눈물이 담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웃과 동료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다. 제주4·3 유적의 입장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직접 이루기 위해서 출마했다.

“낙선 뒀고 다시 신발 끈 조였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3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하던 날, 빗속에서 낙선 인사를 하며 도와 주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함에 쉽게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저는 이제 그 눈물을 닦고 신발 끈을 다시 조여줬다.

흔사 힘들다고 물러설 만큼 제주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아빠찬스 조국사태’로 공정은 온데 간곳 없고, 코로나19 사태는 제주의 경제를 초토화 시켰다.

우리네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욱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못 벌고 못 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저와 경쟁하고 국회에 입성한 분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많이 퍼져 있다.

제대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다시 소중한 고향을 맡길 수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또 도민 여러분을 위해 더 멀리 보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죽을 힘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 서귀포시 선거구

“여민동락’ 마음으로 더 큰 서귀포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지난 4년간 지구 열 바퀴 거리를 뛰었습니다. 현장정치와 진정 어린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했다. 부족한 있었지만 대정에서 성산까지,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오늘과는 다른 서귀포의 내일을 만들 고자 한다.

서귀포의 자존과 가치를 더욱 높여겠다. 일편단심 서귀포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늘 시민 곁에 더 가까이서 들고 실천하겠다. ‘여민동락’의 마음으로 더 큰 서귀포를 만들겠다.

서귀포시에 제주대 약대를 유치해 바이오생약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토대를 만든 농산물 해상 운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부터 1차산업의 피해 대책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누구나 행복한 차별없는 서귀포 시대를 열겠다. 이제 압도적 지지로 더 크게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투표로 힘을 모아달라. 마지막까지 한걸음 더 뛰겠다.

“3무 국회의원’ 심판해 반드시 승리”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민주당이 20년간 서귀포시 국회의원을 독점한 결과 민생경제는 허물어지고 지역의 활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무소신, 무책임, 무능한 현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권의 반법반적, 위법적 폭주를 막아내고 심판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앞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뒤로는 온갖 술수와 편가르기, 학연, 지연에 매진하며 주요 현안에 시종 일관 침묵하거나 표면 의식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무소신, 시민들의 숙원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 정치력의 부족으로 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소위 3무(三無) 국회의원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더 이상 현역 의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서귀포시의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심이 더욱 더 확산 되고 있다. 다음 선거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고 준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지역주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며 지역의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당근·감자·양파·무우 농가에 희소식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 | |
|-----------------------|--|
| 썰파고 | · 나노 유향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
| V패스 | · 양자에너지와 히토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우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킴 |
| 썰파고와 V패스 사용법 | |
| 배추·양배추 브로콜리·양파 | · 소독 : 정식전 묘중침지(썰파고+V패스 12.5말 희석) · 1차 살포 : 파종 10~15일후 썰파고+V패스 살포 · 2차 살포 : 11월 찬바람이 불면 살포 |
| 마늘 | · 파종전 침지(썰파고+V패스 12.5말 희석) · 1차 살포 : 멀칭전 살포 · 2차 살포 : 11월 찬바람이 불면 살포 · 3차 살포 : 2월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 감자·당근·무우 | · 1차 살포 : 파종후 10~15cm 사이 나오면 살포 · 2차 살포 : 11월 초 찬바람이 불면 살포 |

※ 당근·감자·양파 농가에서 농약없이 오직 **썰파고**와 **V패스**로 재배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음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 높은 저장성
- ▶ 토양 공황이성 질병의 방제
-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 강력한 라이모효과
-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향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엽제제, 광합성자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면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